

학교보건간호를 통한 금연 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정연강* · 장영미**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선린 상업고등학교 양호교사

A Study on Non-smoking Education status through School Health Care Services.

Yeon Kang Chung* and Young Mee Chang**

*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School Nurse, Seonlin Commercial High School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set up education program and strategies to prevent high school students from smoking by school health care service. The main groups of study are 814 third-grade male students, 557 parents and 362 teachers, who were randomly chosen at 8 high schools in Seoul. Data analysis consisted of Chi-square test and percentag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less interesting family life is, the more increasing current smoking rate is. (ex-smoking rate 53.5%, re-smoking rate 40.3%, current smoking rate 24.3%)
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χ^2 -test for the school life and the smoking, the students above ranking 41 showed the increase as 48.7% for continuous smoking, 18.9% for re-smoking, 67.6% for the present smoker. But it turned out that the students belonged to ranking 10 were not experienced the smoking. So it showe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score and smoking.
3. It is noted that 93.3% of students, 93.3% of parents and 96.1% of teachers recognize harmful effect of smoking. But less than 70% those have recognized only half of all smoking knowledge.
4.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ents and types of educ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5. For the time of home education and school health education to prevent the smoking, it turned out that 44.9% of students, 42.4% of parents, and 47.4% of teachers considered the optimal time as a high school days.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40.5% of students, 33.4% of parents, and 54.6% of teache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early education before the elementary school. For the optimal time to begin school health education, it showed that the middle school days were indicated from 56.6% of students, 52.7% of parents, the elementary school days were 54.6% of parents, the elementary school days were 54.6% of teacher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人間이 健康하고 오랜 삶을 추구해왔던 努力은 삶

에서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生存條件을 개선시키면서 壽命을 연장시켜왔다. 따라서 社會가 발전할수록 장수를 누리게 된 한편,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

서의 삶의 價値創造로 여겨진다.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健康을 필수요건으로 간주하고 客觀적으로 效果가 있든 없든 간에 스스로 健康해질 것을 믿는 일련의 行爲를 보호, 촉진해왔다. 肉體적으로 健康하고 장수하는 삶, 精神의인 평화를 누리면서 主觀의 또는 客觀의인 가치를 창조하면서 이를 보람으로 누릴 수 있는 삶, 사회적으로는 더불어 살면서 주어진 역할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삶 등이 그러한 行爲의 목표일 것이다.

Rogers(1960)는 健康의 어원을 살펴볼 때 그 본래의 의미를 전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人間の 모든 生産機能이 상호조화를 이루고 總體的 安寧(total being)을 創出하는 것이 곧 健康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健康이 複合的이고 象徴的인 意味를 包括하는 範疇를 나타냄에 따라 개인을 중심으로 그 개인이 속하는 가정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를 土臺로 健康概念이 변하고(WHO 1985) 保健事業의 접근방법이 다양화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保健事業의 접근은 개인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확대되면서 全人看護를 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한 의료보강개도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어떻든 근대사회에서는 健康概念의 변화와 함께 상병 내지는 사망원인도 다양해지고 이를 위한 대응책도 다양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1) 개인 및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건강보호 및 치료기능이 병원 및 사회적 보건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져 사회화되면서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다양한 체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 (2) 건강보호 및 유지가 단순한 肉體的 健康 뿐 아니라 生活習性 즉 의, 식, 주, 吸煙, 음주, 마약 등과 같은 관습과 생활습성과의 관계나 사회구조 및 환경조건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인하게 되는 등 개인의 건강의식, 욕구 또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개체적 집단적 또는 환경적 특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건강문제를 상병의 발생 및 치료라는 전통적 틀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1978)는 2000년대에 모든 사람에게 健康을이라는 목표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健康概念의 변천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이념 역시 상징적인 표어로 남

겨질 수도 있다.

과거 60년대 이후 인구문제는 과잉인구라는 측면에서 양적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는 人間能力에 개발을 기반으로한 인구의 질적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인구자질이라고 하면 우선 우생학적인 질의 향상과 국민건강상태의 개선 등 생물학 측면에서 접근되고 다음으로 教育과 같은 사회과학측면에 다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教育을 통해 습득해 지식이나 기술 등이 인구자질의 지표로서 인식되어 고학력을 북표로한 教育의 인적투자는 꾸준히 되어 있으나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인구자질론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여 왔다. 과거 급성전염병 시절과는 달리 人間の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요인에 비해 생활습관의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을 위해 隔離나 防疫事業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保健教育 등의 保健健康體系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생활습관이 핵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吸煙은 인위적인 行爲로서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속어와 같이 한번 吸煙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쉽게 끊지를 못하는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교복 자율화로 상징되는 학원자율화 물결로 지난 10년동안 靑少年의 吸煙率이 꾸준히 증가되었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 3(남자) 상습 흡연자가 88년 80.4%에서 89년에는 50.0%로 나타났다.

담배의 특성 중에서 人間을 자극하고 대담성을 지니게 함으로서 신체와 精神의으로 건전해야 할 성장기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靑少年의 吸煙 문제는 성인의 吸煙行爲보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나 사회 각계 각층에서 실시하고 있는 吸煙運動에 간호사 참여는 당연히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學校保健事業의 일환으로 현재 吸煙 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양호교사들에게 靑少年 선도 방안과 吸煙에 대한 체계적인 保健教育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코져 한다.

2. 연구목적

학교보건사업에서 현대에 중요시 다루어야 할 보건교육중 금연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인지정도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 목적으로는

1. 가정생활과 흡연행위를 알아본다.
2. 학교생활과 흡연행위를 알아본다.
3. 학생·학부모·교사의 흡연에 관한 지식수준을 알아본다.
4. 학생흡연에 대한 지도교육 실시정도를 알아본다.
5. 흡연예방에 필요한 가정교육, 학교보건교육의 시기를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학군별로 임의표집한 8개 남자 고등학교 3학년 6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학교의 학생, 학부모 557명과 교사 362명인 3집단을 동시에 조사하여 다면적 자료를 혼집하였다.

2. 조사방법

자료수집 기간을 1991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학교를 방문해서 대상학년의 담임시간과 체육시간에 연구목적 및 취지와 앞으로의 활동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준비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응답식 질문조사방법(self-report)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부모에 대하여서 설문지를 가정통신을 활용하였으며 학부모의 일치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교사는 학교교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타당성과 문항의 검정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한 다음 최종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처리 분석은 SPSS/PC+ program을 통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예방에 필요한 가정교육, 학교보건교육시기는 백분율과 χ^2 -test를, 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도 교육실시정도는 T-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흡연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일찌기 1920-1930년대 Arkin 등(1936)과 Tylecote(1927)가 폐암이 남자에서 발생율이 높고 이들 폐암 발생자의 많은 사람이 흡연자였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保健社會部 한국인의 吸煙實態(1989)에 따르면 대한 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전국 결핵 유병률 조사시에 시행한 15세 이상의 전국 吸煙 實態調查에서 1980년에는 남자 79.4%, 여자 12.6%로 나타났고, 1985년에는 남자 71.2%, 여자 7.8%로 나타났다. 또 한국 Gallup조사 연구소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20세 이상의 남여를 표본추출하여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1986년 남자 73.7%, 여자 5.0%로 나타났고, 1987년에는 남자 74.2%, 여자 5.0%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에서의 吸煙率을 비교해 보면 4.4%-30.2%였으며, 吸煙率의 범위가 커서 년도별 변화를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석일 등(1988), 이해숙 등(1989)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高等學校 3학년의 吸煙經驗率이 무려 73.4%에 이르러 1988년에서 1989년까지 불과 1년 사이에 吸煙율이 25%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에서 3분의 2가 常習吸煙者가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吸煙 시작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吸煙과 健康과의 관계는 여러 각도에서 논하고 있지만 16세 이상에서 吸煙을 시작하는 환경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9배나 높으며, 16-19세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6배나 높고, 또한 20세 이상에서 吸煙을 시작하는 사람과 비교해서도 16세 이하에서 吸煙하는 경우는 60%, 그리고 16-19세 사이에서는 20%의 폐암 사망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吸煙을 조기에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위해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Hammond, 1958; 담배와 健康, 1990.2).

1. 가정생활과 吸煙行爲를 보면,

高等學校 남학생의 吸煙行爲와 相關요인 분석연구에서 가정분위기가 화목하고 온화하지 않을수록, 부모 자녀간에 친밀성이 없고, 의견존중도가 떨어질수록 흡연경험율의 증가를 보였다. 집안일에 관심이 적을수록 현재 吸煙率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간의 교육 일관성이 적을수록 계속 吸煙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가족원에 대한 만족도와 吸煙行爲 간에도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吸煙경험자가 증가함을 나타냈다. 한편 아버지의 吸煙량과 吸煙行爲간에는 아버지의 1일 吸煙량의 증가에 따라 학생의 吸煙 계속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 아버지의 吸煙行爲는 학생의 吸煙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접적인 시사를 하고 있다. 부모님의 자녀 흡연 허용도와 관계에서는 적극 반대할수록 비흡연하는 학생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형제 간의 흡연허용도와 학생의 吸煙行爲 사이에는 형제간에 吸煙을 찬성한다는 학생의 환경에서 계속 吸煙 53.3%, 재흡연 11.1%, 적극 반대한다고 한 학생 중에서 계속 吸煙 7.7%, 재흡연 5.4%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찬성할수록 계속 吸煙률과 재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흡연허용도에 따라 현재 吸煙率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吸煙의 계속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吸煙하는 친구와의 교제를 부모가 허용하는 정도와 학생의 吸煙行爲에는 반대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흡연율(찬성하는 경우 28.1%, 적극 반대하는 경우에서 64.1%)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찬성하는 경우 계속흡연자(40.7%)가 적극 반대하는 경우에서(15.5%)보다 많았으며 찬성할수록 계속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부모님께 吸煙하는 것을 발각된 후 吸煙行爲의 변화에서는 계속 吸煙하였다고 한 학생 중에서 79.2%가 현재도 계속 吸煙을 하고 있었고, 흡연량의 감소를 보인다거나 중단하였다는 경우에서 26.9%는 재흡연자, 30.6%는 과거 吸煙經驗者로 계속 吸煙하였다고 하는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님께 吸煙하는 것을 들키지 않았다는 학생에서 과거흡연경험(43.9%), 계속 경험(30.9%), 재흡연(25.2%) 순으로 吸煙行爲를 보이고 전흡연경험자 중에서 36.2%가 부모가

吸煙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과거경험자에서 53.5% 다음이 재흡연자(40.3%), 계속 흡연자(24.3%) 순으로 부모 모르게 吸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부모의 흡연지도상 허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2. 學校生活과 吸煙行爲에서는

성적과 吸煙行爲에는 41등 이상의 경우 계속 吸煙 48.7%, 재흡연 18.9%로 현재 흡연자의 비율(67.6%)이 높았고, 지난 학기말 등수가 낮을수록 계속 吸煙, 재흡연 비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吸煙 경험자를 비롯한 전체 吸煙 경험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0등 이상의 80.2%가 吸煙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서 등수가 높을수록 비흡煙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성적과 吸煙行爲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방과 후 학습시간과 吸煙行爲 사이에는 1시간 이하로 학습시간이 적은 경우에 계속 吸煙 39.8%, 재흡연 17.0%로 현재 흡연자(56.8%)가 5시간 이상 학습하는 학생 중에서의 현재 흡연자(11.7%)보다 많았다. 1-2시간 정도 학습하는 경우에서 과거 吸煙 경험자가 16.6%로 많았으며 5시간 이상 학습하는 경우에 비흡연자가 82.1%로 많았다. 방과후 학습시간이 짧을수록 현재 吸煙율이 증가되었으며, 吸煙의 계속성을 보이고 있었다.

學校생활의 만족도와 吸煙行爲 간에는 學校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6.7%가 계속 吸煙 12.6%가 재흡연하는 현재 흡연자(40.3%)로 만족하는 경우에서 현재 흡연자(18.2%)보다 많았으며, 만족하는 학생에서 13.2%가 과거 吸煙 경험자였으며 68.6%가 비흡煙 학생으로 學校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중에서보다 현재 吸煙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았다. 學校생활을 만족하지 못할수록 현재 吸煙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만족할수록 현재 吸煙하지 않는 과거 흡연경험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 학교생활 만족도와 吸煙行爲 간에는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선생님의 의견에 대한 존중도와 吸煙行爲에서는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 계속 吸煙(31.1%), 재흡연(17.6%)하는 현재 吸煙(48.7%)하는 학생의 비율이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한 학생 중에서 현재흡연율 17.9%보다 높았으

며, 선생님의 의견에 대한 존중도가 떨어질수록 현재 吸煙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되었다.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비흡연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선생님의 의견 존중도와 吸煙行爲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계속 吸煙 14.6%, 새흡연 5.3%)보다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계속 吸煙 31.3%, 재흡연 12.7%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계속 吸煙率과 재흡연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學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吸煙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교내 吸煙 적발단속에 대해서 심하다고 느끼는 학생으로 계속 吸煙(31.4%), 재흡연(14.5%), 현재 흡연자(45.9%)가 그렇지 않다고 한 학생 중에서 (18.5%)보다 많으며, 적발단속을 느끼는 강도에 따라 현재 吸煙하거나, 현재 吸煙하지 않는 현상이 증가되었다.

교내 吸煙으로 인하여 學校에서 처벌을 받은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4.8%(47명/105명)가 吸煙량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學生吸煙을 감소시키고 금연하도록 유도하는데 學校 學生吸煙 처벌지도가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

3. 학생 학부모 교사의 吸煙에 관한 지식수준

학생 학부모 교사의 吸煙에 관한 지식수준에서는 학생 93.3%, 학부모 86.9%, 교사 96.1%에서 吸煙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지식수준이 낮아 70% 이하가 전흡연지식 내용 중에 반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였다.

4. 학생 吸煙에 대한 지도교육 실시정도

吸煙에 따라 교육내용과 학부모, 교사, 각각의 吸煙行爲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용에 따라 학부모, 교사 간의 다른 양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1).

5. 吸煙예방에 필요한 가정교육, 學校保健교육의 시기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吸煙에 필요한 가정 교육시기로는 학생 44.9%, 학부모 42.4%가 中學校를, 교사 47.4%는 高等學校를 適期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 40.5%, 학부모 33.4%, 교사 39.3%가 國民學校 이하 早期教育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學校 保健教育 시기로는 학생 56.6%, 학부모 52.7%가 中學校를, 교사 54.6%가 國民學校를 주로 적절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IV. 결 론

靑少年 吸煙은 또한 靑少年 범죄 및 마약과 접근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Evans 등 1979). 특히 靑少

표 1. 학생흡연에 대한 지도교육 실시정도

구 분	%		吸煙 行爲별(X ²)/p	
	부 모	교 사	부 모	교 사
吸煙에 대한 教育實施 與否	81.2	50.7		
吸煙에 대한 教育內容				
인체유해성	71.5	43.5	*	
습관성	44.2	24.6	**	
간접吸煙의 인체 유해성	27.1	16.4	**	
吸煙의 경제적 손실	16.9	10.3		**
임산부 吸煙의 태아 유해성	19.1	11.7		**
담배연기 속의 유해물질	27.1	19.1		*
吸煙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 증세	35.9	23.7		*
吸煙에 대한 教育方法 수업시간에	※	45.1	※	
집단상담으로		8.8		
개인면담으로		28.5		

* p<.05. ** p<.01 *** p<.001 (※ 해당없음)

표 2. 吸煙豫防에 필요한 가정교육, 학교보건교육 시기

구 분	%		吸煙行爲별 (X ²)	
	부 모	교 사	부 모	교 사
吸煙豫防에 필요한 家庭教育 시기				
學校入學 전	19.5	14.7	4.1	***
국민학교	21.6	18.7	35.2	
중학교	44.9		42.4	13.3
고등학교 이상	14.6	24.2	47.4	
吸煙豫防에 필요한 學校 保健教育 시기				
學校入學 전	5.1	5.9	4.4	***
국민학교	22.1	16.8	54.6	
중학교	56.6	52.7	15.1	
高等學校 이상	16.1	24.6	25.9	

* p<.05. ** p<.01 *** p<.001

年期는 肉體的, 精神的으로 성장기라는 점과 학업을 통하여 인격과 지체를 쌓아가는 시기로써 지나친 吸煙은 靑少年 시기에 확립되는 자아주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민병근 등 1976; Erickson 1956). 그러므로 吸煙습관이 고착되기 전에 이 시기에 吸煙에 대한 올바른 教育과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결핵협회(1985)에서는 우리 나라는 20세 이상에서의 吸煙율을 비교해 볼 때 세계에서 7번째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나라로 밝히고 있다.

고막래(1990)는 高등학교 남학생의 吸煙行爲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吸煙과 관련성에 대해서 학부모 40%이상, 교사 30% 내외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吸煙예방지도를 담당해야 할 학부모, 교사가 학생 吸煙行爲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현재 미세하게 양호교사를 통하여 금연교육을 하고 있으나 靑少年 吸煙이나 여성吸煙의 증가추세를 볼 때 현행 教育制度로는 역부족으로 적극적인 教育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1. 연구결과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학군별로 임의표집한 8개 남자고등학교 3학년 814명, 해당학생의 학부모 557명, 교사 3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찰을 기초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백분율과 x²-test를 사용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과 흡연행위에서는 집안일에 관심이 적을 수록 현재 흡연률이 증가를 보이고 있었으며 부모 간의 교육일관성이 적을수록 계속 흡연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과거경험자 53.5%, 재흡연자 40.3%, 흡연자 24.3%순).
2. 학교생활과 흡연행위에서는 학급에서 41등이상의 경우 계속 흡연 48.7%, 재흡연 18.9%, 현재흡연자 67.6%로 증가를 보였으며, 10등 이상에서는 80.2%가 흡연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과 흡연행위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3. 학생, 학부모, 교사의 흡연에 관한 지식수준에서는 학생 93.3%, 학부모 86.9%, 교사 96.1%에 흡연은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식수준이 낮아 70%이하가 전체 흡연지식 내용중 반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다.
4. 학생흡연에 대한 지도교육 실시정도에서는 흡연에 따라 교육내용과 흡연행위에 따라 학부모·교사간에 다른 양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5. 흡연예방에 필요한 가정교육·학교보건교육의 시기 흡연이 필요한 가정교육시기로는 학생 44.9%, 학부모 42.4%, 교사 47.4%가 고등학교를 적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이하의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는 학생 40.5%, 학부모 33.4%, 교사 39%로 나타났다. 학교보건교육시기로 학생 56.6%, 학부모 52.7%가 중학교에서,교사 54.6%가 국민학교를 적절한 시기로 인식하고 없다.

2. 제언

학생들의 흡연은 사회의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즉 학교보건교육을 통하여,

- 1) 사회나 대중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육성회 조직 및 어머니회를 활용하여 啓蒙教育을 실시한다.
- 2) 교사 연수과정을 통하여 금연실태 파악 및 吸煙教育 시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 3) 일선學校나 가정에서 학생 吸煙豫防指導에 효과적인 吸煙豫防教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토록 한다.
- 4) 초, 중, 高等學校 교과서에 吸煙有害에 관한 단원을 두어 정규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조기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5) 다양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중요성을 두고 保健教育 科目이 教育過程 속에 단독과목으로 개설되어 성장박육과정에 맞추어 바람직한 건강습관 형성과 자기건강관리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볼 때 靑少年期の 禁煙教育은 學校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 뿐만 아니라 전국민 保健向上에도 매우 유의있는 일이라고 볼 때 정부나 민간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강복수, 이성실 : 일부 농촌주민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3(1), 77-86, 1980.
2. 고막래 : 남녀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지식·인식 및 행동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지역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0.
3. 기백석, 이재광, 이길홍, 민병근 :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판별함수 분석. 중앙의대지, 12(3), 499-517, 1987.
4. 김건열 : 흡연에 대한 건강장해, 흡연과 국민보건(제 26회 보건학 세미나), 대한보건협회, 37-51, 1989.
5. 김경희, 최삼섭 : 일부 도시 남자대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5(1), 41-54, 1979.
6. 김명, 고승덕, 박주미, 김선희, 고선히 : 중고등학생의 담배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2), 76-85, 1989.
7. 김은숙 : 중고등학생들의 흡연교육실태(서울). 담배와 건강,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3, 1990.
8. 김일순 : 유형에 따라 금연방법 달리해야. 담배와 건강,

- 6-7, 1989.
9. 김현수, 유영식, 나철, 이철, 민병근 : 청소년과 약물문제. 중앙의대지, 13(3), 1988.
10. 김현수, 이길홍, 민병근 : 한국 청소년의 음주 흡연 실태와 그 개선책. 한국의과학, 16(3), 241-245, 1984.
11. 김현숙 : 제주지역 여대생의 흡연행태 및 보건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3, 1989.
12. 남정자, 정기해, 최성옥 : 한국보건교육개선에 관한 연구(II). 진단적 접근방법에 의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13.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 전국흡연실태조사성적, 결핵 및 호흡기 질환, 32(1), 31-45, 1985.
14.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 전국흡연실태조사성적, 결핵 및 호흡기 질환, 34(2), 108-123, 1987.
15. 맹광호 :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10(2), 138-145, 1988.
16. 민병근, 이길홍 : 한국 청소년의 흡연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976.
17. 민병근 : 한국 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 연구(1975년 및 1978년). 한국의과학, 12(3), 187-201, 1980.
18. 박명운 : 청소년의 흡연실태와 대책. 청소년 흡연과 금연교육에 관한 세미나, 한국금연운동 협의회, 16, 1990.
19. 박형규 :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찰. 대한의학협회지, 10(8), 545-548, 1967.
20. 서일 : 한국인의 흡연율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역학회지, 10(2), 131-137, 1988.
21. 심영애 : 서울시내 남녀고교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22. 이승환 : 서울 시내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행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5(1), 37-56, 1983.
23. 이연숙 :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의 보건교육 내용에 대한 흥미 및 요구조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24. 이영숙 :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 37-56, 1983.
25. 이해숙, 김일순, 서일 :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 비교(1988-1989). 한국 역학회지, 11(2), 198-203, 1989.
26. 임태영 :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27. 장창곡, 안경실 : 서울지역 여대생의 흡연에 관한 제특성과 보건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4(2), 107-113, 1988.
28. 정상호, 노대식, 천혜숙, 유충근 :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관한 역학적 조사. 최신의학, 13(10), 75-80, 1970.

29. 조지행 : 고등학생의 숨은 비행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8개 고등학생의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87.
30.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담배와 건강, 한국금연운동협의회, 5, 1988.
31. 한국역학회 : 우리나라에서 흡연연구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역학회지, 10(2), 146-152, 1988.
32. 한국역학회 : 흡연의 역학적 연구과제, 한국역학회지, 10(2), 153-156, 1988.
33. Allegrante, J.P., O'Rourke, T.W., Tuncalp, S.A. : A multivariate analysis of selected psychosocial variables on development of subsequent youth smoking behavior, *Journal of Drug Education*, 7(3), 237-248, 1977-1978.
34. American cancer society : A Study of Public Schools Teacher's Cigarette Smoking Attitude and Habits, American Cancer Society, 77, 1976.
35. Aschto, H. Stepnet, R. : Smoking, Psychology and Pharmacology, in Stepney, R. Individual and Social Attitudes toward Smoking,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 New York, 135-152, 1982.
36. Banks, M.H. Bewley, B.R. Bland, J.M. Dean, J. R. Polland, V. : Long-term Study of Smoking by Secondary Schoolchildren,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53, 12-19, 1978.
37. Baric, L. : Nonsmokers, smokers, ex-smokers, three separate problems for Health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Supplement to Vol.22, issue No.1, 1-20, 1979.
38. Bewley, B.R., Bland, J.M., Harris, R. :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arting of cigarette smoking by primary schoolchildren, *British Journal of Preventive and Social Medicine*, 28, 37-44, 1974.
39. Chen, T.L., Rakip, W.R. : The Effect of the teacher's Smoking Behavior on their involvement in smoking education in schools, *JOSH*, 14(8), 455-461, 1975.
40. Coan, R.W. : Personality variables associated with cigarette smoking, *J. Pers. soc. psychol.*, 26, 86-104, 1973.
41. Demon, S.J. : Smoking habit of delinquent boys, *British Journal of Preventive and Social Medicine*, 18, 52-54, 1964.
42. Diehl, H.S. : *Healthful Living*, 7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4.
43. Duryea, E.J., Martin, G.L. : The Distortion Effect in Student Perceptions of Smoking Prevalence, *JOSH*, 115-118, 1981.
44. Evans, R.I., Henderson, A., Hill, P., Raines, B. : Smok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social Determinants and Prevention Strategies, in krasnegar, N.A., *The Behavioral Aspects of Smoking*, NIDA Research Monograph, 26, 69-96, 1979.
45. Fisher, E.B. : Progress in Reducing Adolescent Smoking, *AJPH*, 70(7), 7-8, 1980.
46. Hasenfus, J.L. : Cigarette and Health Education among Young People, *JOSH*, 41, 372-376, 1971.
47. Horn, D. : A Model for the Study of Personal Choice health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19(2), 89-98, 1976.
48. Ikard, F.F., Green, D.E., Horn, D. : A scale to differentiate between types of smoking a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ffect, *Int. J. Addict*, 4, 646, 1969.
49. Kelson, S.R., Pulella, J.L., Otterland, A. : The Growing Epidemic, A Survey of Smoking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among students in Grader 7 through 12 in Toledo and Lucas Country Public Schools 1964-1971, *AJPH*, 65(9), 923-938, 1975.
50. Lee, S.J.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moking behavior and the smoking behavior of their children, *Journal of Korean Nursing*, 8(3), 83-94, 1984.
51. Mausner, B., Platt, E.S. : *Smoking: A Behavioral Analysis*, New York, Pergamon, 1971.
52. Mettlin, C. : Peer and Other influences on smoking behavior, *JOSH*, 46(9), 529-532, 1976.
53. Morris, J.F., Tichy, M.W. : Smoking Habits and Attitudes of Oregon Secondart School Coachs, *AJPH*, 60(7), 1271-1277, 1970.
54.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Teenage Smoking, National Pattern of a Cigarette Smoking, Age 12 through 18, in 1972 and 1974,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HEW Publication, No (NHI) 76-931, 125, 1976.
55. Nolte, A.E., Smith, B.J., O'Rourke, T. :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 Upon Youth Smoking Behavior, *JOSH*, 53(4), 264-271, 1983.
56. Palmer, A.B. : Some variables contributing to

- the onset of cigarette smoking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 359-366, 1970.
57. Pezer, V. : Teacher's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Canadian Smoking and Health Programs, 1964..
 58. Ross, H.R., Mico, P.R. : Theort and Practice in Health Education, Mayfield Publishing Company, 59-60, 1980.
 59. Salber, E.J., MacMahon, B. : Cigarette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Related to Social Class and Parental Smoking Habits, *AJPH*, 51(12), 1780-1789, 1961.
 60. Tandy, R.E. : Effect of Programmed instruction on Attitudes, Behavior, and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15(12), 106-112, 1972.
 61. Walton, R.G. : Smoking and Alcoholism, *Am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11), 1455-1456, 1972.
 62. WHO Expert Committee : Smoking and its effect on health, Geneva, WHO TRS, 568, 1975.
 63. WHO : Smoking and its effects on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00, 1975.